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M. O. Han Editor

VOL. 7 No. 9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November/ December



아리랑의 밤 개최

1978년 아리랑의 밤을 다음과 같이 가지고자 합니다.

장소 : 와싱턴-프라자 호텔

BALL-ROOM (볼룸)

때 : 1978년 12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입장료: \$ 8.00 (일인당)

회장의 마지막 감사말씀

금년 12월 말로써 한인회장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몇 가지 친애하는 회원 및 고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의 말

2년 동안 무사히 일을 해오게 된 것은 어리고포들의 협조와 지도의 힘이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리고포회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정신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교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교포사회에 사랑과 관심을 계속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한민국 씨애플 주재 총영사관 장운걸총영사님과 남흥우영사님, 이선진부영사님도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이창희 선생님, 박암 선생님, 서두수박사님들의 아낌없는 물심양면의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직접 돕고 같이 일을 하계된 임원, 이사들 또 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우리 한글 학교 선생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낌없는 협조와 수고를 하신 우리 오준걸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면 제한으로 일일이 이름은 다 적지 못하오나 다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인회

를 도와주신 법률고문 "블린톤" 씨와 "잭.슬리" 씨와 특히 주정부지사 DIXY LEE RAY 및 주지사 사무실에 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남기는 말

그동안 하고 싶은 일은 많았지만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오는 회장 단들께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십지로 먼저 이루어 놓은 중요한 일 즉,

1. 한인봉사센터 설립 (새로 이민 온분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직장압선, 기탁안내및상담.)
2. 정기적인 한인회 사무실 및 연락처 설치와 유지.

전화번호: 624-7604, 624-7607

3. 한인 한글학교 설립 (우리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수업. 현재 60명의 학생이 있으며 교사 4명을 유지.)

4. 운전면허책자 한글판 발간 및 한글로 운전시험을 보게끔 했음. 또한, 대한민국 해군함정환영 행사와 같은 금년에 치른 큰행사는 모두 고포여러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일보다 더 발전적

(계속) ↗

GRAND FOODS 한국식품개장안내 *

오래전부터 미국식품만을 취급하던 LAKE CITY WAY, N.E. 85TH에 자리잡고 있는 "그랜드마켓"은 완전한 한국식품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육부에서는 즉석에서 갈비, 불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썰어 드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파티용으로 쓰이는 많은 양의 불고기나 갈비감은 미리 주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 번호 : 525-8334

주소 : 8512. 20TH AVE. N.E. SEATTLE. WA 98115

광고 접수 *

한인회보에 광고를 내고 싶으신분은 매월 15일 이전으로 광고의뢰를 하십시오. 영업용 광고 원고를 만드셔서, 한인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연락전화: 624-7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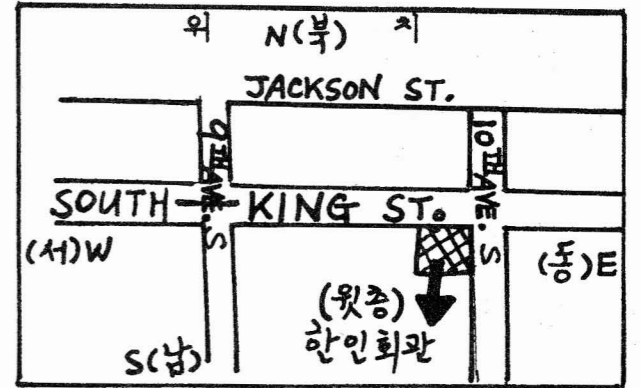
624-7607

부고 환영 *

한인회보는 씨애플-워싱턴 지역 외에 타지역까지도 널리 발송되고 있습니다. 교포들께서 보내시는 원고는 성의껏 실어드리겠습니다. 매월 15일까지 한인회 P. O. BOX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교포사회에 유익한 생활정보나 문예작품, 논설, 기탁 어떤 내용이나 좋습니다.

씨애플-워싱턴주 한인회관의 장소 *

주소 : 925. S. King St. TEL: 624-7604
Seattle, WA. 98104 624-7607



알림

저소득자를 위한 아파트나 집을 구할수있는 신청서를 한인회에서 구비하고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한인회로 연락하십시오. 한인회 전화번호 : 624-7604, 624-7607

편집후기

고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건강에 유의하시어, 남은해를 건강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정성스러운 원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좋은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목.

- 329. 전영환 : \$ 15.00
- 330. 이정길 : \$ 15.00
- 331. 계완근 : \$ 15.00
- 332. 한문식 : \$ 15.00
- 333. 윤갑병 : \$ 15.00
- 334. 김경배 : \$ 15.00
- 335. 김현재 : \$ 15.00
- 336. 유선자 : \$ 10.00
- 337. 전해옥 : \$ 10.00
- 338. 장찬순 : \$ 10.00
- 339. 오인식 : \$ 10.00
- 340. 백관화 : \$ 15.00
- 341. 문군성 : \$ 15.00
- 342. 전황성 : \$ 10.00
- 343. 김순복 : \$ 15.00
- 344. 손경자 : \$ 10.00
- 345. 이세훈 : \$ 15.00
- 346. 오수남 : \$ 15.00
- 347. 송월숙 : \$ 10.00
- 348. 김추환 : \$ 15.00
- 349. 이유신 : \$ 15.00
- 350. 권수일 : \$ 15.00
- 351. 서옥남 : \$ 15.00
- 352. 이상돈 : \$ 15.00
- 353. Naneymorgan : \$ 10.00
- 354. 방 Jhon K : \$ 15.00
- 355. Ellen 정 : \$ 10.00
- 356. Shinyeda 혜자 : \$ 10.00
- 357. 박 Kent : \$ 15.00
- 358. Myong S. Park : \$ 15.00
- 359. Ford Myong : \$ 10.00

360. George Matsumura : \$ 10.00

일반기부금 납부자

- 이종찬 : \$ 20.00
- 김종구 : \$ 10.00

운전면허책자 납부자

- | | |
|---------------------|---------------------------|
| 김종원 : \$ 5.00 | Noble, R H : \$ 5.00 |
| 최달주 : \$ 5.00 | Jun, Young Keun : \$ 5.00 |
| 현숙Eagle : \$ 5.00 | Russel, Yon Ok : \$ 5.00 |
| 우칭남 : \$ 5.00 | Read, Chong Cha : \$ 5.00 |
| 이연자 : \$ 5.00 | |
| 노길택 : \$ 5.00 | |
| 김명희 : \$ 5.00 | |
| John, Y 백 : \$ 5.00 | |


김현중부동산
 (FRANK) HYUN (CHOONG) KIM

* 무로공사: 공장, 아파트, 빌딩, 매스지그.
 * 무로상담: 정복본, 공정을 보드립니다.
 * 취급종류: 주택, 아파트, 호텔, 도지, 점포, 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 7828, BUS. 774 7828, 525 7200
 Tacoma 417 2112

저렴한
중 앙 식품
가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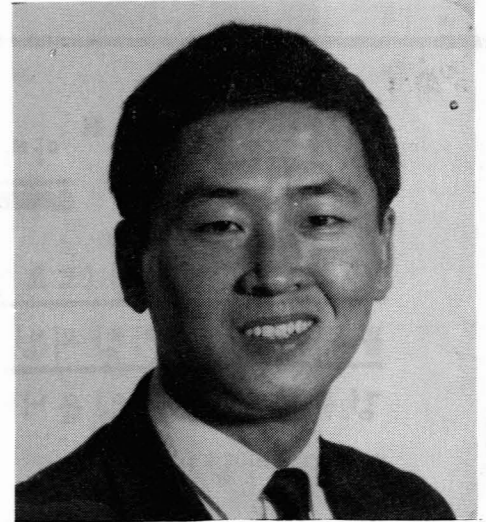
선물용품 대량 입하
녹용, 인삼 대량 입하
한국식품 일체

주소: 9641-15TH AVE. S.W. SEA. WA
 전화: 762-5620

(한인회 회장 광복 계속)
 이고 십지로 우리고포들사회에 뚝이
 될수있는 일을 다음에오는 회장 단
 과 이사단이 하게될것입니다. 많은
 협조와 계속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꼭 한가지부탁하고싶은것은 우리
 씨애를한인회는 여태까지 조용히 일을
 해왔으며 "정치"를 위한한인회가
 아니었으며 또 계속 그렇게 되기를 기대
 합니다. 우리서로돕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자라는점은 물어주고 장점은 자랑하
 는 적극성있는 마음의태도를 베품으로서
 우리 이지역 한인사회가 평화롭게 발전
 을 해왔듯이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저를 도와주신 많은
 고 포 여러분, 임원및이사, 봉사센타
 의신, 구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축복을 기원
 합니다.

씨애를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김 형진 배상.



1979년도 씨애를 .워싱턴주 한인회
조성욱 회장

지난 11월 11일 개최되었던 총회에서
 1979년도 씨애를-워싱턴주 한인회
 회장단이 선출 되었습니다. 새회장 단
 에는 회장에 조성욱씨, 부회장에
 이형상, 김정부 제씨입니다. 또한
 새이사3명은 안병용, 조요한, 김현중
 제씨이며, 이사장에 김현중씨,
 부이사장에 조요한씨가 선출되었습니다.
 축하와 성원을 드립니다.



공청회 개최

Seattle Times 기사에 관한 공청회가 아택와 같이 열립니다.
 관심있으신분은 꼭 참석하시기 바라며, 법적투쟁을 위한비용
 충당을 위해서 기부금을 보내주시수 있으시면, 한인회 사무실
 (보내실곳: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로 송부 하십시오.
 공청회 날짜 : 12월14일(목요일) 저녁 7시 정각
 공청회 장소 : 씨애를-워싱턴주 한인회 봉사센타
 925, S. King St. Seattle, Wa. 98104

"아리랑의 밤"

1978년 12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워싱턴프라자호텔 볼룸"에서 "아리랑의 밤"이 개최됩니다. 이날은 특히, 많은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1978년 "아리랑의 밤" 행사준비위원단.

1. 준비위원장: 김형진, 조성욱
2. 경품: 한만섭, 김현중, 김철준, 조요한
3. 표 판매 (예매): 김철준, 김창성, 안병용
4. 선전/광고: 오준걸, 김길탕
5. 안내: 윤학덕, 황성록, 김정부, 김재호, 황수철, 이신남.
6. 실내장치: 정명환, 박제인
7. 밴드: 김현중, 김철준
8. 음식: 한명옥
9. 사회: 이형상
10. 프로그램: 김형진

- | | | |
|--------------------|--------------------|--------------------|
| 239. 양승관: \$ 15.00 | 269. 정상식: \$ 5.00 | 299. 안기혁: \$ 15.00 |
| 240. 김지창: \$ 10.00 | 270. 오윤철: \$ 10.00 | 300. 송면식: \$ 10.00 |
| 241. 서영민: \$ 10.00 | 271. 장태수: \$ 10.00 | 301. 박 : \$ 15.00 |
| 242. 김용기: \$ 10.00 | 272. 장유숙: \$ 15.00 | 302. 이순희: \$ 15.00 |
| 243. 강승철: \$ 10.00 | 273. 장영미: \$ 10.00 | 303. 이춘영: \$ 40.00 |
| 244. 이정보: \$ 10.00 | 274. 엄종훈: \$ 10.00 | 304. 김정남: \$ 15.00 |
| 245. 윤종식: \$ 15.00 | 275. 정성국: \$ 10.00 | 305. 김은성: \$ 15.00 |
| 246. 당영중: \$ 10.00 | 276. 김택: \$ 15.00 | 306. 조병우: \$ 15.00 |
| 247. 민병창: \$ 10.00 | 277. 백용기: \$ 15.00 | 307. 엄명보: \$ 15.00 |
| 248. 송기만: \$ 15.00 | 278. 최성환: \$ 15.00 | 308. 허권: \$ 10.00 |
| 249. 김두영: \$ 15.00 | 279. 조기두: \$ 15.00 | 309. 박학준: \$ 15.00 |
| 250. 김구: \$ 10.00 | 280. 문인환: \$ 15.00 | 310. 오운호: \$ 10.00 |
| 251. 조종기: \$ 15.00 | 281. 최운은: \$ 15.00 | 311. 이현순: \$ 15.00 |
| 252. 권형규: \$ 15.00 | 282. 신명철: \$ 15.00 | 312. 이용명: \$ 10.00 |
| 253. 백성규: \$ 15.00 | 283. 이병익: \$ 25.00 | 313. 김창성: \$ 15.00 |
| 254. 김홍식: \$ 15.00 | 284. 장국경: \$ 15.00 | 314. 이주용: \$ 10.00 |
| 255. 최석봉: \$ 10.00 | 285. 강명수: \$ 15.00 | 315. 이계원: \$ 15.00 |
| 256. 조병식: \$ 10.00 | 286. 이규진: \$ 15.00 | 316. 임영백: \$ 15.00 |
| 257. 엄충보: \$ 10.00 | 287. 조성택: \$ 15.00 | 317. 김수지: \$ 15.00 |
| 258. 김시용: \$ 15.00 | 288. 윤순옥: \$ 15.00 | 318. 박중식: \$ 15.00 |
| 259. 김간상: \$ 15.00 | 289. 김운백: \$ 15.00 | 319. 장보봉: \$ 15.00 |
| 260. 김영애: \$ 10.00 | 290. 백경수: \$ 15.00 | 320. 이영호: \$ 15.00 |
| 261. 변영수: \$ 10.00 | 291. 김응조: \$ 10.00 | 321. 박옥길: \$ 10.00 |
| 262. 강택원: \$ 15.00 | 292. 김영복: \$ 10.00 | 322. 최길자: \$ 15.00 |
| 263. 유인애: \$ 15.00 | 293. 김상복: \$ 15.00 | 323. 허남옥: \$ 15.00 |
| 264. 이덕상: \$ 15.00 | 294. 손달수: \$ 10.00 | 324. 김명원: \$ 10.00 |
| 265. 임정식: \$ 15.00 | 295. 이기락: \$ 15.00 | 325. 이규명: \$ 10.00 |
| 266. 나동천: \$ 15.00 | 296. 정연직: \$ 15.00 | 326. 황채영: \$ 10.00 |
| 267. 최수호: \$ 15.00 | 297. 신호범: \$ 15.00 | 327. 김영십: \$ 10.00 |
| 268. 김준영: \$ 15.00 | 298. 노도술: \$ 15.00 | 328. 이숙희: \$ 10.00 |

- | | | |
|----------------------|---------------------|---------------------|
| 147. 김충일: \$ 15.00 | 178. 임병식: \$ 15.00 | 209. 김학영: \$ 15.00 |
| 148. 김정일: \$ 15.00 | 179. 박두 되: \$ 15.00 | 210. 이 의성: \$ 15.00 |
| 149. 이 상목: \$ 15.00 | 180. 장명세: \$ 10.00 | 211. 이 운수: \$ 10.00 |
| 150. 최 인식: \$ 15.00 | 181. 김학영: \$ 25.00 | 212. 정낙영: \$ 15.00 |
| 151. 김의현: \$ 15.00 | 182. 최창만: \$ 15.00 | 213. 이 성호: \$ 15.00 |
| 152. 오 운영: \$ 10.00 | 183. 박창복: \$ 15.00 | 214. 전동희: \$ 15.00 |
| 153. 황의택: \$ 15.00 | 184. 박상황: \$ 15.00 | 215. 지 장한: \$ 15.00 |
| 154. 김수영: \$ 10.00 | 185. 강동언: \$ 15.00 | 216. 홍 증원: \$ 10.00 |
| 155. 곽증세: \$ 15.00 | 186. 장부용: \$ 15.00 | 217. 허 남해: \$ 10.00 |
| 156. 유정길: \$ 10.00 | 187. 윤 양섭: \$ 10.00 | 218. 고 광운: \$ 15.00 |
| 157. 문연숙: \$ 10.00 | 188. 이규환: \$ 10.00 | 219. 성운식: \$ 15.00 |
| 158. 이 증선: \$ 15.00 | 189. 박병선: \$ 15.00 | 220. 성운필: \$ 15.00 |
| 159. 김영조: \$ 10.00 | 190. 노 덕연: \$ 10.00 | 221. 이 강협: \$ 10.00 |
| 160. 서 광선: \$ 15.00 | 191. 권말선: \$ 10.00 | 222. 안세득: \$ 15.00 |
| 161. 백인기: \$ 15.00 | 192. 김옥네: \$ 10.00 | 223. 노 인석: \$ 10.00 |
| 162. 김영민: \$ 15.00 | 193. 문유기: \$ 15.00 | 224. 서 식현: \$ 15.00 |
| 163. 김종택: \$ 15.00 | 194. 최 선기: \$ 25.00 | 225. 허 백: \$ 15.00 |
| 164. 이 운수: \$ 15.00 | 195. 심종식: \$ 15.00 | 226. 강 정미: \$ 15.00 |
| 165. 소 제민: \$ 10.00 | 196. 박헌택: \$ 15.00 | 227. 김용설: \$ 15.00 |
| 166. 임희택: \$ 10.00 | 197. 김두형: \$ 15.00 | 228. 양 배승: \$ 15.00 |
| 167. 이 흥동: \$ 10.00 | 198. 이 형상: \$ 15.00 | 229. 김광택: \$ 15.00 |
| 168. 권옥주: \$ 10.00 | 199. 강용진: \$ 15.00 | 230. 주 봉덕: \$ 10.00 |
| 169. 임현규: \$ 15.00 | 200. 김창호: \$ 10.00 | 231. 주 봉서: \$ 10.00 |
| 170. 서 영호: \$ 10.00 | 201. 최 훈: \$ 10.00 | 232. 김용세: \$ 15.00 |
| 171. 윤 병환: \$ 15.00 | 202. 이 재욱: \$ 10.00 | 233. 황운경: \$ 15.00 |
| 172. 손 우학: \$ 15.00 | 203. 장주영: \$ 10.00 | 234. 정요한: \$ 15.00 |
| 173. 손 무 학: \$ 15.00 | 204. 김배수: \$ 10.00 | 235. 정혜숙: \$ 10.00 |
| 174. 김학남: \$ 15.00 | 205. 최 명완: \$ 10.00 | 236. 변득암: \$ 10.00 |
| 175. 황익덕: \$ 15.00 | 206. 전승원: \$ 10.00 | 237. 변우건: \$ 10.00 |
| 176. 서 광천: \$ 15.00 | 207. 박영해: \$ 10.00 | 238. 주 봉익: \$ 10.00 |
| 177. 서 광선: \$ 15.00 | 208. 윤 유노: \$ 15.00 | |

선거를 무사히 마치고 *

1979년도 씨애플-워싱턴주 한인회를 대표할 회장단(회장1명, 부회장2명) 과 임기가 완료되는 이사 3명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가 지난 11월 11일 총회에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특히 3명 의 이사를 선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3명의 이사 후보자가 등록하였으므로 이사들은 무투표로 당선되게 되어서 더욱 무난한 "선거"를 치루 었습니다. 회장단 선거에 있어선, 선거 3주 전 까지 회장단의 입후보등록이 없었으므로 결국 총회장에서 직접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선거 하게 되었습니다. 두(2)회장단의 입후보가 있 었으므로 투표에 들어가 한(1) 회장단을 선출 했는데, 선거는 가장 평온한 가운데서 진행되 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510여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회원들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히 생각합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총회장에서 많은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였는데 어떤 회원들은 한 시간 이상이나 회비 납부대열에서 기다리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며 총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더욱 감격 하였습니다. 세대당(부부) 15불, 동반자가 있었을 때는 10불을 보태어 25불이나 되는 회비를 척척 내며 한인회 사업에 적극 참여 하는 것 보았을 때 한인회 발전상을 억 억히 볼 수 있 습니다. 내년도 총회 때는 계속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보태고 싶은 말씀은 총회 때에는 과거 한인회 임원을 지내신분은 물론 한인회를 적극 성원하시던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날로 늘어가신 새 회원들과 함께 한인회 사업에 적극 성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한 만 섭

지난 11월 3일 한인회 봉사센터에서는 일기의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포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영사관 개관환영회를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한국인 의학박사 노 MYONG J. 씨가 아택의 두 장소에 산부인과 개업을 하였습니다. 고포여러분의 이용을 바랍니다.
장소: 1711 SO. 324TH PLACE
FEDRAL WAY. WA. 98003
전화번호: 927-8440
장소: 201 N. DIVISION
AUBURN, WA. 98002
전화번호: 833-2580

북미주 의 한국인 (上)

Philip Kyung Sik Park 글

박 건홍 옮김

편집자주: 다음글은 한국인 3세

Philip Kyung Sik Park (박경식)

목사가 뉴욕에서 발간되는 Bridge (다리) 라는 잡지에 기고한 영문 에세이를 번역한 것이다. 이 글에서 필립.박목사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사회에서 자라면서 느끼고 생각한 한국인의 주체 의식에 대하여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오늘 우리교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특히 자녀교육 문제를 생각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여 여기에 실는다. 필립.박목사는 현재 뉴-욕에 있는 통일장노교회에서 아세아 선교 개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면 관계로 이 글을 상.하로 나누어 하 부분은 다음 호에 실리기로 한다.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차를 몰고 어떤 약방에 갔던 일이 생각난다. 삼촌은 훗따람을 불면서 약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약방문을 나오실 때 큰 소리로 깔깔웃고 계시지 않는가?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웃느냐고 삼촌에게 물으니 삼촌 대답이 "내가 약방에 들어가니까 약사가 나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당신

은 키가 큰 걸 보니 일본사람은 아닐 테고, 중국사람은 훗따람을 불지 않으니 중국사람도 아닌데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촌은 한국사람이라고 대답했다 한다. 그러니까 그 약사는 "아, 한국이 멕시코 근처 어디인가 있는 나라 아니요? 그렇지요." 하더라는 것이었다. 요즈음에야 미국 문화도 많이 개명되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리 없겠지만, 그러나 이야기는 오늘날 북미주 한인 사회가 가지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그 관심이란 바로 "아이덴티티" (역자주: 주체성, 일체성, 동일성 - 가령 자기 자신을 한국의 문화, 역사, 전통에 동일화 시켜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덴티티" 문제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에 대한 얘기 두 가지만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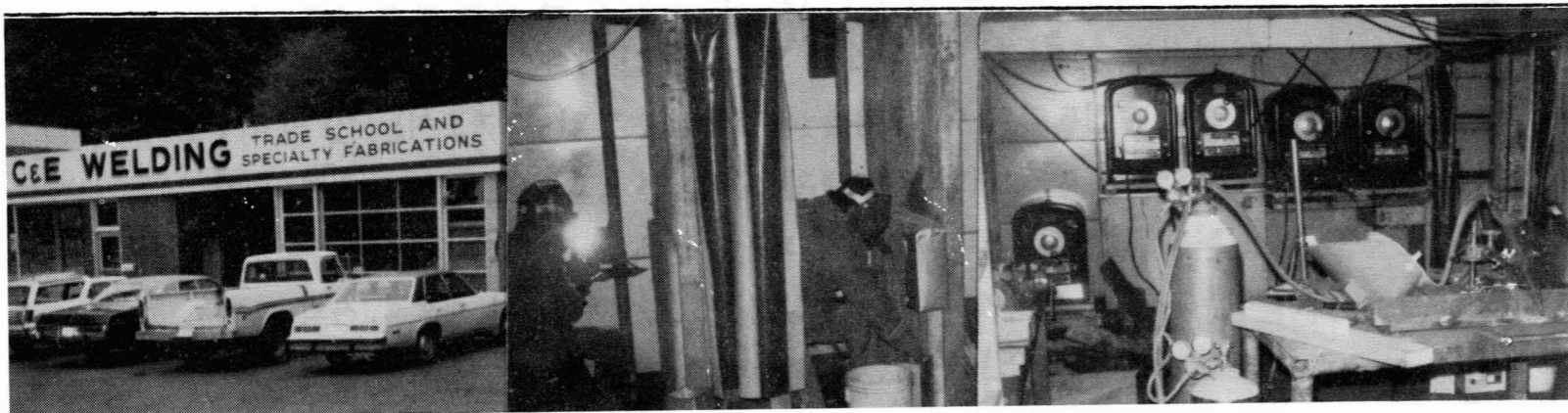
첫 번째 얘기는 지금 80세가 넘는 어떤 노인 에 관한 것인데, 이분은 1895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분이시다. 이분이 태어날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한인 사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사실상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한국인이었다. 이분은 한국의 좋은 가문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

- | | | |
|--------------------------------|--------------------|---------------------|
| 63. 조 용조 : \$ 10.00 | 91. 김성기: \$ 10.00 | 119. 이 상인: \$ 10.00 |
| 64. 김성길: \$ 10.00 | 92. 손희섭 : \$ 10.00 | 120. 김현백: \$ 10.00 |
| 65. 오 수 당: \$ 20.00 | 93. 허 영: \$ 15.00 | 121. 조 갑철: \$ 15.00 |
| 66. 김중진: \$ 15.00 | 94. 김기섭: \$ 10.00 | 122. 유 인중: \$ 15.00 |
| 67. 서두수: \$ 15.00 | 95. 최홍순: \$ 10.00 | 123. 조복몽: \$ 10.00 |
| 68. 김종구: \$ 10.00 | 96. 조진환: \$ 15.00 | 124. 유경신: \$ 10.00 |
| 69. 김원근: \$ 10.00 | 97. 이종해: \$ 10.00 | 125. 김한영: \$ 15.00 |
| 70. 박정운: \$ 10.00 | 98. 임계식: \$ 15.00 | 126. 박봉영: \$ 15.00 |
| 71. 조성옥: \$ 20.00 | 99. 서광운: \$ 15.00 | 127. 민병구: \$ 10.00 |
| 72. 심상훈: \$ 10.00 | 100. 오일성: \$ 15.00 | 128. 신병균: \$ 10.00 |
| 73. 황수철: \$ 15.00 | 101. 서광택: \$ 15.00 | 129. 정증환: \$ 10.00 |
| 74. 손대관: \$ 10.00 | 102. 서정남: \$ 10.00 | 130. 김기영: \$ 15.00 |
| 75. 박춘환: \$ 10.00 | 103. 황창호: \$ 15.00 | 131. 김장수: \$ 10.00 |
| 76. 김현중: \$ 15.00 | 104. 양기백: \$ 10.00 | 132. 정달학: \$ 10.00 |
| 77. 주상길: \$ 10.00 | 105. 강득오: \$ 15.00 | 133. 이강남: \$ 15.00 |
| 78. 김형진: \$ 20.00 | 106. 조명환: \$ 10.00 | 134. 이말문: \$ 15.00 |
| 79. Mr. Charls Young: \$ 10.00 | 107. 고광준: \$ 15.00 | 135. 윤창영: \$ 15.00 |
| 80. John. L.F. Slee: \$ 5.00 | 108. 고광호: \$ 15.00 | 136. 김정부: \$ 15.00 |
| 81. Yi Barbara: \$ 10.00 | 109. 노순연: \$ 10.00 | 137. 김명환: \$ 15.00 |
| 82. 정철식: \$ 15.00 | 110. 김희연: \$ 10.00 | 138. 변영: \$ 15.00 |
| 83. 김기호: \$ 15.00 | 111. 황성록: \$ 15.00 | 139. 이길수: \$ 10.00 |
| 84. 김영부: \$ 15.00 | 112. 김영삼: \$ 10.00 | 140. 김세용: \$ 10.00 |
| 85. 차현섭: \$ 15.00 | 113. 문무용: \$ 10.00 | 141. 박봉수: \$ 15.00 |
| 86. 원용준: \$ 10.00 | 114. 구상모: \$ 15.00 | 142. 김일소: \$ 15.00 |
| 87. 노정석: \$ 10.00 | 115. 김현범: \$ 10.00 | 143. 강손식: \$ 15.00 |
| 88. 김남규: \$ 10.00 | 116. 장현수: \$ 10.00 | 144. 권용성: \$ 15.00 |
| 89. 이강표: \$ 15.00 | 117. 예정현: \$ 10.00 | 145. 정유수: \$ 10.00 |
| 90. 권석기: \$ 10.00 | 118. 이성희: \$ 10.00 | 146. 최안양: \$ 15.00 |

로 분석하고 청중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어생활이라고해서 특별한 별개의 범주의 생활이 아니요, 우리가 일상주고받는, 논떠서 잡때까지의 생활에서 좀더 국어에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항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나 없나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요는 검양의 미덕을 지닌우리고포공동생활을 의식하며 바르고 고운 말을 씌으로써 우리후손들에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깨끗이 물려줘야겠다는 각오를 한번더 다짐하는 바다. 따라서 불을 생활에 유용하게 쓰듯이 말도 유용하게 잘 써야 한다.

(필자: 현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회원)



한인용접학교 개설안내

(한인용접학교 모습.)

한인용접학교 개설이후 지금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번창하고 있음을 우선 감사드리며, 무직또는 저임금 직장에 근무하시는 고민들께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개교와 함께 용접을 배우겠다는 교포들이 쇄도하여 현재 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단 2주 (82시간) 만에 제 1회 졸업생을 배출, PACIFIC CAR & FOUNDRY 용접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취업중인분도 있음을 커다란 보람과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주 정부와 교섭중인 C.E.T.A 또는 M.D.T.A 등의 허가를 받게되면 재정면에서 곤란하신분들께 무료수강도 가능 할것입니다. 여러분의 난관을 극복하고 타개하는데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게됨을 마음 가득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 칠식 배상

C&E 용접학교 주소 : 7200 DELRIDGE WAY. S.W. SEATTLE.
(K-MART 건너편 전주소)
전화번호 : 763-9190

출신이었으나 태어날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겪은 사정은 참담했다. 이분의 부모님께서 장태생활문제가 압담하여 이분을 그곳에 있는 삼촌댁에 맡기고 다른곳으로 떠났다. 그 삼촌 이란분도 한국의 양반가정 출신이었는데 일자리가 없어 식당에서 접시닦이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것처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분은 소시적에 때때로 학교도 제대로 못다니며 구두닦이심부름등 무엇이든지 닦치는대로 일할수 밖에 없었다. 그런일을 하다보니 때로는 남한 배서 옥도 얻어 먹고 매를 맞는 일도 있었다. 비록 이렇게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이분은 그태도 한글을 배웠고 한문도 좀 익혔으며 한국말도 좀 할줄 알게 되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님이시다.

두번째 얘기는 얼핏듣기에는 아주 다른 얘기다. 어떤 젊은이에 관한 얘기인데 이 젊은이도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의 아들이었다. 그 부모님들은 미국에 와서 벌써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모국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들은 한인교포사회입에 적극적이고 한인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이다. 물론 이분들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라다가 10대에 가족을 따라 이곳에 온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식들이 배워 익히

기를 바라고 있다. 작년 여름 이들 부모님들은 장남을 한국에 보내어 조부모님들을 찾아뵙게 하기로 하였다. 아들이 한국에가서 한국말도 좀 할수있게 되기를 바라는등 아들의 한국여행에 큰 기대를 걸었다. 사실그 젊은이는 한국에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잡곡밥을 보니 검은스테인색갈에 구미가 안당겨 밥을 먹을 마음이 안생겼다. 다른 음식도 당기지 않았다. 결국 굶게 만들수는 없는지라 그 젊은이의 삼촌은 조카를 하루에 한번씩 이태리 식당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사먹어야 했다.

이 두얘기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흐르고 있다. 그 공통점이란 주체성이란 것이다. 내가 이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체 의식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도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사회에서 살고 기능을 발휘하는데 난관에 봉착할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체 의식문제에 있어서 중요한점은 무엇이 며 재복미 한인사회가 어떻게 이문제를 다루어 나가기 시작하여야 할것인가? 주체성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북미주에서 오래살고 있는 한국인들, 한국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라다가 10대에 가족을 따라 이곳에 온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식들이 배워 익히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미주에서 아주

배어나고 자란 사람들 - 이들은 서로 성격이 다른 "아이덴티티" 문제를 각각 체험하고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주로 미주에서 배어나고 자란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그것은 내 자신의 경험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에서 자란 사람은 한정된 순수한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누구인가를 규정해주는 언어, 역사, 음식 및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잊점이 있다. 그들은 그야말로 한국사람들이다. 북미주에서 배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자기 부모와 조부모들과 닮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잊점을 한 가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한국말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한국문화를 거의 알고 있지 못하고 김치를 좋아할 수도 싫어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한국인과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미주에서 배어나고 자란 한국인들은 자신의 주체 의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주체 의식이 부모들의 경우와 똑같이 설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배어난 사람의 경우는 동일주체성이 문제가 된다. 한국에서 배어난 사람은 이곳의 문화 속에 살고 있음에도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한국음식을 먹고 되도록 한국말을 사용하며 자녀들에게

한국적 가치와 한국에 관한 관심을 불어 넣어 주려고 애쓴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의 참 문제는 동일주체성이 아니다.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참 문제는 그들 자신이 규정하고 있지만, 소속 의식을 갖는 일이다. 만약 이들이 자기 부모들의 문화와 자신을 동일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면 다른 무엇인가가 생기게 된다. 그것은 보통 자신과 직결되는 생활을 형성해주는 환경에 자기를 동일화시킨다는 말이다. 한국사람만 모여사는 한국촌 같은 데서 살지 않는 젊은이들은 제 1차적으로 백인 사회와 관계를 맺게 된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살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시킬 수도 있다. 모양은 한국사람 같아 생겼지만 실제 경험에 따라 자기가 한국인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특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말을 잘못해서 자기가 한인 사회에 소속된다는 기본을 느낄

말 (조선어)을 못쓰게하고 일본말을 우리동포에게 강제로 쓰게 이끌었다. 또한 이름도 일본식으로 소위 창시개명 하게했으니 이는 우리말을 그냥쓰게두면, 우리한국사람끼리 정신이 통하고 뭉쳐 계몽의식이 더욱 굳어져 독립을 다시하게되는 것이니, 아예 한민족으로서의 얼(정신, 녀)을 뽑아 말살해 버리려고 한 아주 중요한 정책 때문이었다. 우리말이 좋지 못하거나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말속에 들어있는 반만년간의 우리민족정신을 지워버리자는 정책이었다. 저 유명한 독일의 애국철학자 "뫼히테"는 그의 저서 "독일국민에게 고함"에서 "말이 없 어지지 않는 한국민정신은 쓰러지지 않는다."고 외치며 나포테온에게 짓밟힌 독일국민을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후손에게 단순히 우리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만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국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생활의 실현으로서의 의의도 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실로 국어의 보급은 중요한 것이다. 이상은 국가에 대한 국민된 도리에서의 언어생활에 말했거니와 다음은 사회생활을 하는 일개 개인대 개인, 개인대 사회면에서의 언어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라고들 한다. 달리 말해서 "거울에 비친 마음의 영상이라고 하겠다. 상스럽거나 저속한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을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하기에 항상 신중을 기해서 자기가 할 말이 상대방에게 줄 영향과 동시에 산울림처럼 반향되어올 나에대한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한다. 말이란 상대적인 것이기에 내가 한 말에 대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게되는 심리적 반향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많은 대중을 상대하여 하는 말, 소위 연설, 강의, 기탁 선동의 말들에서는 자신의 인격이 그대로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이기에 즉흥적 이어서는 안될 것이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수단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쓰자는 것이다. 한번 내뱉은 말은 거둬들일 수 없거니와 설사 철회한다손 치더라도 그 자욱은 남아 있게 되는 법이다. 항상 청중을 다각도

"교양강좌" ★

언어생활

글. 이형상

인류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동기는 불을 발견하여 식생활 개선은 물론, 동력 자원으로 이용하게 되면 서부터라고 하며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뛰니뛰니해도 말이란 생활도구를 고안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서부터라고 한다. 인간은 이 두가지를 통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요, 오늘과 같은 고도의 문명을 획득,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은 누구나 이미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불은 인류의 물질문명과 관계되는 것이기에 여기서는 약하고 말(글말과 소리말)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말은 인간사회,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의사를 주고 받는 표현수단이기에 정신적인 면과 상관한다고 본다. 좀더 세분하여 말을 입말(구어, 음성언어)과 글말(문어, 문자언어)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 글말이 생기면서부터 또 한번 문명의 발전도가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또 먼곳에까지, 먼 훗날까지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록하여 보관하고, 연구 검토하며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성과 공간성을 초월한 것이기에 배우고 익힘에 힘들어도 교육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방향을 달리하여 생각해 보겠다. 지난 10월 19일, 김용식 주미대사께서 씨애플을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자. 그분의 연설중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을 우리들 후손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줘야 한다. 즉, 우리가 부모들로부터 들고 배운 우리말을 우리자손에게 잘, 바르게 물려주자"는 요지의 말씀이었다. 어버이된 우리들과 2세된 우리 자식들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비극이 없을까? 이런 비극적인 단순한 면보다도 우리가 조상 대대로 물려 받았던 귀중한 유산을 우리의 대에서 분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유산을 우리도 잘, 바르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부모된 도리로써 힘이 들어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흔히들 언어학자들은 말에는 정신이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는 정신적으로 통하는 바가 있어 통치게 된다는 것이다. 좀 속스럽긴 해도, 입제말, 1910년 한·일합방 후 입제는 우리의

수가 있었다고 언젠가 나에게 말씀 해주신 일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거부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린이가 부모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한국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한국음식 보다는 다른 음식이 더 좋다고 하는 것 등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 소속감을 갖는 문제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나이가 많은 세대의 경우는 기본적 생존이 문제가 된다. 나외 아버지 지께서는 신학교를 졸업하실 당시 미국 어느 곳에도 그분 교회에 속하는 한인 교회가 없었다. 따라서 아버지는 백인 사회에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요즘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사회적 생존이 문제가 되고 있다. "피어 구롭 아이덴티티" (역자주: 지위, 능력, 취미, 사상 등이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사회적 현상)의 경향이 강한 문화속에서는 학교성적이 우수하거나, 운동이 뛰어나거나, 또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젊은 한국인들이 사회경쟁을 뚫고 나갈 수 있다. 또한 가지 복잡한 요소 중 하나는 인종

차별 문제이다. "아이덴티티"와 소속감은 북미주에서 한국인이 소수인종이라는 사실, 또한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종종 인종차별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복잡해진다. 사람들이 한국어 어린이를 "칭크" ("중국놈") 또는 "팬 케이크 페이스" ("납작코")라고 부를지도 모르며 이런 소리를 듣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주먹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나이 먹은 세대는 남들처럼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든가 직장에서 승진을 못한다든가 하는 등 그외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인종차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은 소속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맥락에서만 실제로 인식되는 문제이다. 편견이란 들어내 놓고 거부를 표시하는 형태이다.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약자 자기가 영어도 잘 할 줄 알고 인종적으로 통합된 사회에서 일 잘 하며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속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하여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는 그것을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아이덴티티"를 아무 것도 찾지 못한 채 거부될 수도 있다. 북미사회는 사람이 무엇인가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사람들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북미주의 한국인 계속

(다음호에 계속)

번역자는 워싱턴 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생으로 현재 박사학위논문 을 집필중에 있음.

한인학교 겨울 방학안내

매주 토요일에 열렸던 한인학교가

11월 25일부터 겨울방학기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개학날짜는 각 가정 에 추후 알릴 것이며, 회보를 통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PERFORMANCE REPORT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Performance Report for a period from March 1, to November 20, 1978

It is the Association's multi-service center staffed by two full-time workers, one Administrator/Program Director and the other, Counselor, whose positions are CETA-funded through the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of the State of Washington. It's operating expenses are being met by donations and membership dues. Our people are relatively new-domers compared to Japanese and Chinese, and for this reason un-employments and social problems among our people are greater. Since the Service Center's operation from July 19, 1977 the following services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1, to November 20, 1978 have been provided by the Center.

Activities:

1. Establishment of Korean School : 1978, 5,6
2. Publishing of Driver's Manual in Korean language :
3. Seafair/Korean Navy Welcome activity : From 1978,8,4, To 1978,8,7
4. Opening of English Class in two areas.(UNDER AUSPICES OF THE LITERACY COMMISSION)
5. Telephone Calls and Inquiries: 1820
6. Job Developing and Job Placement : 318
with Providing Rides ,
Helping/Writing Applications,
Helping/Interviewing.
7. Interpretations and Trans lations -inperson : 150
- on the phone : 394
8. Finding Shelters and Apartments : 45
9. Visitors and Inquires: 264
10. General Consulting : 1421
11. General office Work : As needed
12. Programming Korean Community Activities.
13. Publishing Korean Monthly News letter.
14. Seminars Two times.
15. Coordin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Agencies.

한인 카톨릭교회 소식

씨애틀 한인 카톨릭교우회는 매월 첫주 일 오후 2시에 차 미도 신부 집 권으로 한국말 미사를 올리고 있는데 오는 12월 17일에는 성탄축하특별 미사와 함께 합동고해성사가 있 겠음으로 정기적으로 미사참례를 못해은 교우들은 빠짐없이 꼭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바란다 고 한다.

교회주소는 **ST. EDWARD CATHOLIC CHURCH. 4213. SOUTH OSCART ST. SEATTLE.**

문의 또는 연락은

차 미도 신부 722-7888

김덕환 회장 641-0667

성군관 대학교 동문회 소식

씨애틀지역 성군관 대학교 동문회 (회장 구범희씨) 는 1978년도 송년회를 오는 12월 30일 (토요일) 저녁 6시에 **FAR EAST (N. 201ST & AURORA N.)** 에서 갖게 되는데 임원 개선도 겸해서 있을 예정 이므로 동문들은 전원부부동반하여 참석하길 바라고 있다. 연락은 회장 닥 (778-1267) 이나 부회장 **JOHN LEE** (852-4481), 마코마지역은 조영웅 (474-2546) 으로 하면 된다.

경북중.고등학교, 대구고보 동창회

씨애틀지역에 있는 경북중.고등, 대구고보출신 들은 김연조 (의환은행씨애틀지점장) 닥에서 총회를 가졌는데 임원진을 보면, 명예 회장에는 서두수 박사를 추대하였고 회장엔 박춘환 (365-1230) 총무엔 이선진 (778-7311 또는 682-0132) 마코마지역 연락 책임자는 채백용 (473-0633) 제씨로 구성되어 있으며 년말에는 송년 회를 가집 예정인데 일자와 장소는 추후 발표.

워싱턴주 한인학생 망년회

워싱턴주 한인학생회에서는 다음 과같이 망년회를 한다고 합니다.
장소: **BLACK BURN MEMORIAL HALL.**
주소: **12327. 15TH AVE. N.E**
전화번호: 362-9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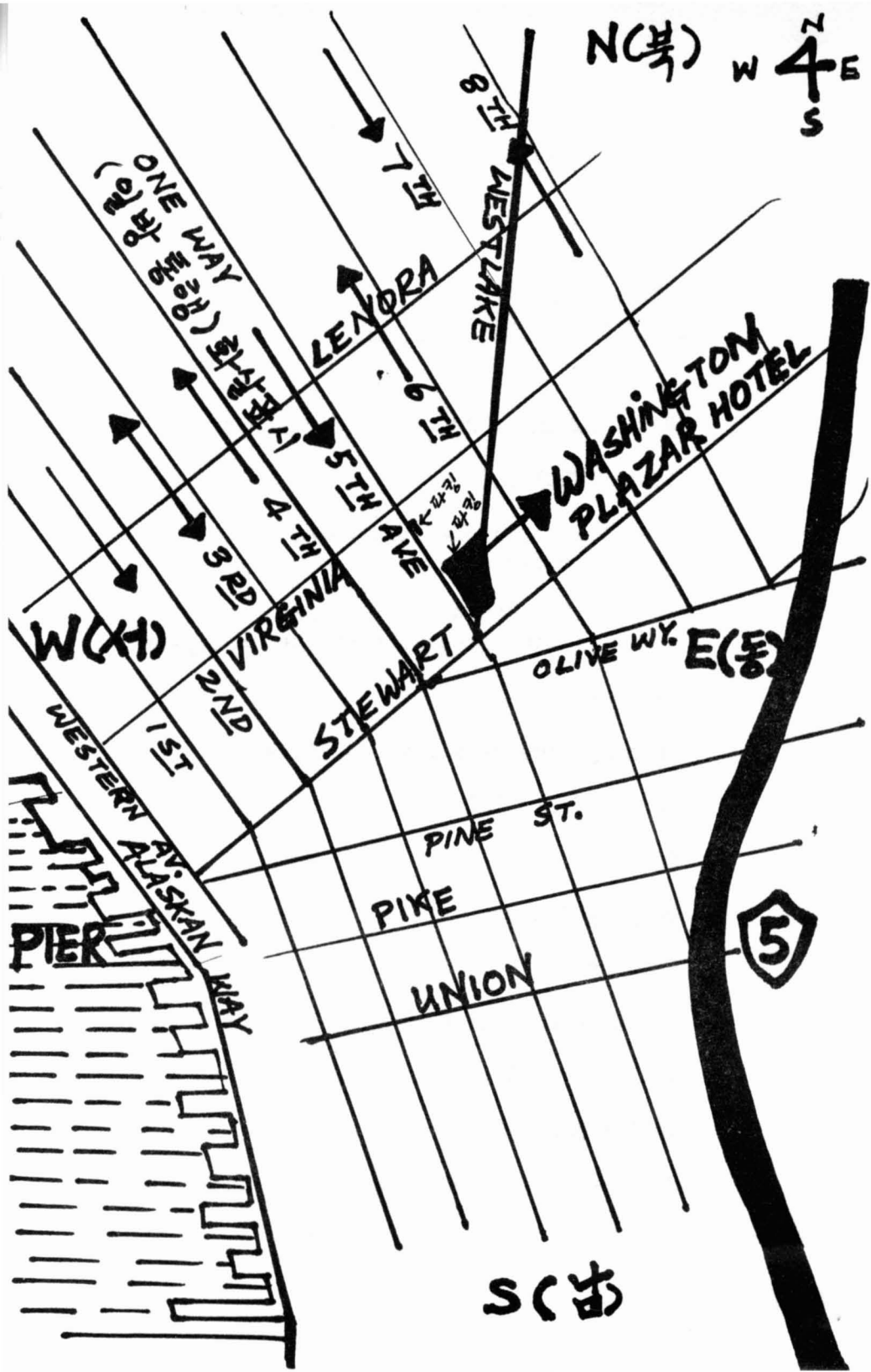
때: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저녁 식사와 음료수 및 다과가 제공됨)

동문회 소식들

경희대학교 동문회에서는 제 2회 정기 총회 및 망년회를 아택와 같이 개최 한다고 합니다.

날자: 12월 16일
장소: 김상목 회장 닥
회비: \$ 10.00 (가족당)
지참물: 음식물약간
연락처: 525-8334, 523-1122

신임회장단을 선출하오니 경희대 동문이면 누구나 부부동반하여 참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랑의 밤

(THE KOREAN NIGHT PARTY)



날짜 (DATE) : 1978년 12월 23일 (보)

December 23, 1978

시간 (TIME) : 저녁 7시 30분 (P.M)

장소 (PLACE) : WASHINGTON PLAZA HOTEL BALL-ROOM
1900, 5th Ave & Westlake

주최 : 씨애틀 . 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아리랑의 밤을 개최하면서

크리스마스 와 새해를 맞이하여 고향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넘치기 바랍니다.
일년에 한번 있는 큰 행사의 하나인
"아리랑의 밤"을 가지고자 하오니 부디
많이 오셔서 자리를 같이 하시어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장 김형진 올림.

날짜 : 1978년 12월 23일 (토) 저녁 7시 30분 정각

장소 : WASHINGTON PLAZA HOTEL BALL-ROOM

(뒷면 약도 참고)

예약처 : 624-7604, 624-7607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노래와 무용

간식

노래자랑 (참가하실분은 미리 연락바람): 상품있음.

경품추첨 (입장하실때 받은 티켓을 가지고

계십시오)

댄스와 자유시간 (흥겨운 밴드와 파티)

입장료 : 1인당 \$ 8.00

(식사대, 밴드비, 장소비, 광고료포함)

입장권매매 : 각한국인상점. 한인회 이사, 임원

You are cordially invited to attend

THE

ARIRANG NIGHT PARTY
(THE KOREAN NIGHT PARTY)

Date: December 23, 1978 (Saturday)

Time: 7:30 P.M.

Place: Washington-Plaza Hotel
Ball-Room

1900 5th Ave & Westlake

(See directions on the back page)

Program

Opening Remarks & Introductions

Korean Music & Dance

Snack

Singing Contest

Door Prize

Social Dance and Free Time

Admission : \$8.00 Per Person

RSVP : 624 -7604 or 624 - 7607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謹賀新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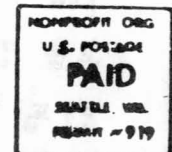


歲暮에 삼가 교포 여러분들의 健勝을
빕니다. 보험업에 종사한 짧은 기간동안 이렇듯 발전
하고 성장하였음은 오직 고객 여러분들과 교포 諸賢
들의 사랑과 協助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새해에도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의
보험요구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결심을 새로이
하는 바입니다. 보다 큰 幸運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978 년을 보내면서 김철준 올림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0505 000003145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